

## 『にほんご 春夏秋冬』について

西口光一（大阪大学）

本書の企画者である筆者は、外国出身者に対する日本語教育に長年従事してきた者である。でありながら、従前から、言語の習得の中核は、当該の言語をただ習得することではなく、むしろ表現活動に従事できる人を育成することだと考えていた。大阪府の識字・日本語の推進事業に関わって、その確信を新たにした。識字・日本語活動の要は、(1)学習者と支援者が持ち合わせている言語技量をもち寄って交流すること、(2)そうした交流を通して学習者と支援者の間の交友を深めると同時に、自身のことや自身の暮らしやさまざまなことについての考えに関連した識字や日本語の技量を伸ばしていくこと、である。

日本は四季があり、日本での暮らしの重要な部分も四季の移り変わりの中で展開されていく。季節の移り変わりに目を向けて、それぞれの季節で一人ひとりの暮らしを見つめ、また各自の来し方と現在と将来を見つめ直すというのは、人々との交流の場でもある識字・日本語の活動のモチーフとしてひじょうにふさわしいものである。

本書では、山川家の人たち8人を登場人物として、各ユニットで、話のきっかけとしてかわいいイラストが提示され、それに続いて、山川家の人たちがその季節での経験を語る。例えば、春・3では、大学を卒業したばかりの山川かきおさんが、初出勤と入社式の経験について話し、さらに、アパートを借りて独り立ちする一連の経験について話す。次の春・4では、お母さんの山川さくらさんが、みかんちゃんの小学校入学準備の話をし、みかんちゃんは、入学祝いにおじいさんやおばあさんからいろいろなプレゼントをもらった話をする。学習者はこのような山川家の人たちの話を聞いて、自身の経験を振り返って、それを日本語で語ったり書いたりする。各ユニットの話は、基礎的な物であり、すこし進んだ日本語になっているものもある。こうした活動を通して、学習者は自身の経験を振り返り、それを言葉にしていくことを学んでいく。

## 『일본어 춘하추동에 대해』

니시구치 코이치(오사카대학)

본서의 기획자인 필자는 외국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사람이다. 일본어교육활동을 해 오면서 언어 습득의 핵심은 해당언어를 단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 오사카 후의 문해·일본어 추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문해·일본어 활동의 핵심은 (1) 학습자와 지원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기량을 가지고 와서 교류한다는 것, (2)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학습자와 지원자 간의 교우를 쌓아가는 동시에, 자신에 관한 것이나 생활, 다양한 일들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문해와 일본어 기량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사계절이 있어 일본에서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계절의 변화에 눈을 돌려 각 계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직시하면서 각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간의 교류의 장이기도 한 문해·일본어 활동의 모티브로서도 매우 적합한 것일 것이다.

본서에서는 야마카와 가족 8명을 등장인물로, 각 단원에서 이야기의 계기를 일러스트로 제시하고 뒤이어 야마카와 가족들이 그 계절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봄-3 에서는 대학을 막 졸업한 야마카와 카키오씨가 첫 출근과 입사식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파트를 빌리고 혼자 독립하게 되는 일련의 경험에 대해 말한다. 그 뒤로 계속되는 봄-4 에서는 어머니인 야마카와 사쿠라씨가 미캉이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한편, 미캉이는 입학축하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은 이야기를 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야마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일본어로 말하거나 쓰거나 하게 된다. 각 단원의 이야기는 기초적인 일본어로, 조금 어려운 일본어로 된 문장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그것을 언어화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번역: 김윤정(수도대학도쿄)

翻訳: 金侖貞(首都大学東京)